찬탄순례

현불논단



석길암 교수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학부

11월 11일부터 사흘간 불교학부 학생들과 함께 삼보사찰을 순례했다. 학부생 100여 명과 함께 송광사를 시작으로 화엄사와 실상사 그리고 해인사를 거쳐 통도사를 참배하는 일정이었다.

송광사에서는 보조국사 감로탑을 참배하며 승보종찰의 의미를 되새겼고, 화엄사에서는 사사자 삼층석탑을 찾아 중생구제의 참뜻을 새긴 사자빈신삼매의 원력에 동참하리라 서원을 세웠다. 실상사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선문가람을 보았고, 해인사 장경판전을 참배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에 기대어 나라를 지킨 호국의 염원을 보았다.

그리고 그 모든 의지와 원력의 근원이 되는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마침내 부처님을 뵈었다. 스님들은 젊은 대학생 불자들이 삼보사찰을 순례하는 것을 반가워했고, 화엄사와 해인사에서는 숙식까지 제공하는 환대를 베풀었다.

그렇지만 반가움과 기꺼움만이 가득한 순례길일 수는 없었다. 참배하고 순례하는 일은 한편으로는 전통사찰의 하루 일과에 동참하고 체험하는 과정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느직한 아침 늦잠 대신에 새벽 3시에 일어나 예불에 동참해야 했고, 스마트폰 혹은 노트북이 채워주던 저녁 일상은 저녁예불과 법문 그리고 저녁 9시에 취침하는 어둡고 조용한 산사의 밤이 대신 채웠다.

혼자만의 안락한 공간이었던 원룸 혹은 기숙사

학부 학생들과 삼보사찰 순례
힘들었지만 서로 알아간 시간
마음속의 삼보를 찾아가 보길

방 대신에 10명, 20명이 한 방을 사용하는 대방생활의 불편함이 저녁이면 찾아들었다. 그것도 얼굴만 알고 낯설었던 서먹서먹했던 친구들과 함께였다. 스님들을 만나고, 부처님을 만나는 즐거움을 무시할 순 없었지만, 일상생활을 떠난 데서 오는 불편함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짧은 2박3일의 순례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일정이기도 했다. 혼자서 묵묵히 순례길을 따라 참배하는 이도 힘들어하는 친구의 손을 잡아 끌고 밀어가는 이들도 있었다.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서 1학년 남학생이 말했다. "우리 과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이번에 친구들 이름도 알고, 왜 외톨이로 살았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말에 이번 순례 진행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승보와 법보와 불보의 삼보사찰을 찾아 나선 순례길, 그 길이 각자의 마음속 어딘가에 숨어있을 부처님을 찾아 나서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삼보사찰을 참배하는 순례길이었지만, 그 길은 나를 만나고 또 내 옆 사람을 다시 만나는 길이기도 했다. 순례에 꼭 때와 장소를 가릴 필요가 있을까? 사실 우리 불자들은 이미 스스로의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이 아닌가. 그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삼보를 순례하는 길은 어떨까. 그 순례길에 함께하고 있는 인생의 도반들을 잠깐 눈여겨 돌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만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순례를 아닐까. 불자라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순례길을 시작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혹여 막 시작된 추위에 먼 순례길이 어렵다면, 스스로의 마음과 옆사람의 마음을 보듬는 순례길을 시작해 보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세간과 출세간



효록 스님
다르마심리상담명상센터 대표

수능이 끝난 지금 수험생은 잠시 쉴 틈도 없이 정시모집이라는 또 하나의 관문 앞에 서 있다. 어떤 대학, 어떤 학과에 지원해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지금이 아이들의 마음이 가장 예민하고 힘들 수 있다.

초·중·고 12년 동안 아이들은 부모의 불안, 학교의 기준, 사회의 욕망 속에서 마치 공부하는 기계처럼 살아 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떠올릴 때마다 "정말 잘 버텨 왔어. 고생 많았어. 그리고 미안해"라고 말하고 싶다.

청소년들은 인정받고 사랑 받고 싶다는 욕구와, 거절과 실망을 피하고 싶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린다. 아직 자아가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았기에 자신의 기준보다 부모·교사·또래의 기준에 의존하며 그들의 기대에 맞출 때 안전과 가치를 확인한다. 그러나 순응은 관계를 유지해 주는 동시에 자기 욕구와 감정을 숨기게 만들고, 외부 평가에 따라 자기 가치가 흔들리는 취약성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은 '있는 그대로의 나'와 '기대에 맞춘 나' 사이의 괴리를 경험하며, 정체성 확립과 자율성을 향한 갈등을 겪는다.

한때 한국 사회에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문구가 유행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성적이 좋으면 선생님의 칭찬을 받고, 부모님도 흐뭇해하며 자녀를 자랑스러워했다. 학생에게는 사랑받는 기준이 '성적'이 되어 버리곤 했다.

대학 입시 앞두고 힘든 수험생들
삶은 시험보다 길고 길은 하나 아냐
따뜻한 말 한마디로 나아갈 힘 줘야

하지만 학교 문을 나선 뒤, 인생은 전혀 다른 원리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곧 깨닫는다. 좋은 성적이 반드시 좋은 삶을 보장하지 않으며, 명문대를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곧 훌륭한 것도 아니다. 진정한 행복은 성적표나 명함에 있지 않다.

몇 해 전에 들었던 가슴 아픈 사건이 생각난다. 한 부모가 자녀에게 반드시 명문대에 입학하기를 강요했다. 그 학생의 삶은 쉼 없는 공부로 채워졌다. 부모가 원하던 대학의 합격증을 건넨 바로 그날, '이제 됐지'라는 짧은 메모를 남기고 학생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부처님께서는 "과도한 욕망은 고통을 낳는다"라고 말씀하셨다. 욕망이 자비심을 잃을 때, 그 고통은 가장 연약한 존재에게 향한다. 우리는 이 비극 앞에서 "그 명문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입시 경쟁의 틀 밖에서 자신만의 길을 연 사람도 다수다. 공근식 박사는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20여 년간 수박 농사를 지었고, 42세에 러시아 유학을 떠나 언어 장벽과 퇴학 위기를 넘은 끝에 박사 학위를 수석으로 받았다. 지금은 대학에서 양자역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의 여정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다.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는 다르며 배움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삶은 시험보다 훨씬 길고 길은 하나가 아니다. 그러니 부디, 아이들을 믿고 응원하자.

정시를 앞두고 불안과 긴장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조언이나 채찍이 아니라 따뜻한 한마디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여기까지 온 것만해도 참 고마워."

이 한마디 말이 아이들에게는 다시 숨을 고르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社 說

기록, 기억을 지키는 힘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잊힌다. 한국불교의 오랜 역사 속에서 비구니 승가는 수행·포교·교육·호국의 자리를 당당히 지켜왔으나, 그 자취는 기록되지 못하고 '보조의 역사'로 머물러 왔다. 뒤늦게라도 기록을 찾아 정리하는 일은 곧 한국불교의 역사를 온전히 세우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의 활동은 주목된다. 연구소가 출간해 올해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에 선정된 〈역사 속 한국비구니〉는 삼국 시대부터 오늘까지 이어진 비구니 승가의 법맥과 활동을 정리한 최초의 연구서다.

또 연구소는 11월 27일 '근대 격랑 속 한국비구니 승가' 학술세미나를 열고 일제강점기라는 거센 시대의 파도 속에서도 수행과 실천, 항일운동을 이어간 스님들의 삶을 면면히 조명했다. 국채보상운동 참여와 군자금 조달, 독립운동가 돌봄까지. 기록의 부재로 묻혀 있던 역사를 찾아낸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번 출간과 세미나를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연구·출판·아카이브 구축이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자료들이 교육·문화·콘텐츠로 확장될 때 비구니 스님의 역사는 비로소 살아 숨 쉬게 된다.

비구니 스님들의 역사를 밝히는 작업은 미래를 단단히 세우기 위한 밑바탕이다. 기록되지 못한 비구니 수행자들의 숨결을 되살리고, 스님들의 뜻을 오늘의 한국불교에 온전히 계승하는 일이 우리 앞에 과제로 놓여 있다.

변화·발전하는 동국대에 응원을

불교종립 동국대가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지난해보다 1단계 오른 8위를 달성하며 역대 최고 순위를 다시 기록했다. 더불어 5년 연속 톱10 진입이라는 새로운 기록도 세우며 명실상부 상위권 대학으로서 입지를 다졌다. 동국대는 종합순위에서 2021년 9위, 2022년 9위, 2023년 8위, 2024년 9위, 2025년 8위를 기록하며 5년 동안 상위 10위권을 안정적으로 수성했다.

특히 동국대는 올해 신설된 학문평가 부문에서 생명·화학 분야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며 이공계열 전문 대학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또한 동국대는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 '취업 걱정 없는 대학'을 목표로 교육 여건 개선에 힘썼고, 이는 '다니고 싶은 대학'으로 거듭나는 큰 요인이 됐다. 실제 불교계 등에서 답지하는 기부금은 평가 대학 중 기부금 분야 5위를, 학부 1인당 장학금 9위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동국대 변화의 중심에는 건학위원회가 있다. 해봉당 자승 대종사를 고문으로 지난 2021년 발족한 건학위원회는 '불교중흥, 동국발전'을 기치로 내부 역량을 결집했고 그 성과들은 이제 조금씩 가시화 되고 있다.

내년이면 동국대는 건학 120주년을 맞는다. 동국대는 내년을 '국내 대학 톱5, 세계 대학 톱100을 향한 새로운 시작의 해'로 정하고 정진한다는 계획이다. 인재 양성은 미래 불교를 위한 중요한 불사다. 교육을 게을리 한 조직에는 미래가 없음을 알고 인재 불사에 투자와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69년(2025) 12월 3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12월 3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12월 3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인천지역 상주하시는 종무원장 스님과 종도 스님들을 모집합니다.

010-6219-4757, 010-5385-3658

불기 2569년(2025) 12월 3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